

# ‘땀의 현장에서 이룩한 EDPS’

-삼양타이어-

이단형

## 1. 개요

삼양타이어는 주식관리에 이어 1974년 1월에 원가관리 EDPS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 업무에 대한 EDPS화 개발(연구책임자 : 성기수)을 시작하게 되었다. 삼양타이어의 업무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전산에 관한 기반조성을,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전 업무에 대한 개발을 하였고, 제3단계로서 토탈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전산업무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주로 삼양타이어 자체내의 프로그래머 교육과 아울러 삼양타이어 전 직원에 대한 전산에 대한 인식을 부여시켰으며, 업무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동시에 판매관리를 위주로 업무개발에 착수하였다.

2단계로 전 업무에 대해 개발에 착수하여 루틴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수작업을 폐지해 나갔다. 이리하여 회계관리, 판매관리, 원가계산, 자재관리 등 업무에 대하여 개발을 완성시켰으며, 자체내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하여 능률적인 업무처리와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예를 들면 재고관리면에 있어서 서울 사무소와 광주 본사의 지역적인 차이로 서울 사무소의 판매부에서 광주 본사 재고를 매일 파악할 수가 없어 판매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일반적인 펀치 카드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최초로 TTY를 이용한

Cardless System을 도입하여 서울 사무소의 판매전표와 광주본사의 생산전표의 입력으로 서울 하치장과 본사 재고를 매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계관리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용해 왔던 복식부기의 전표를 없애고 증빙서 위주의 무전표 시스템을 도입 하였으며 사용해 오던 대부분의 장비를 폐지하여 전산화 보고서로 대체하게 되었다.

3단계에서는 생산관리부분에서 작업전표실시, 회계관리에서의 자금일보 작성 등 2단계 개발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전업무에 대한 토탈 시스템을 확립하고, 삼양타이어 독자적으로 전산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 2. 배경

삼양타이어와 우리 연구소가 인연을 맺은 것은 신주공모를 전산처리해 준 1973년 12월이다. 수작업으로는 엄두도 못낼 업무량이 이삼일 이내에 말끔히 처리되는 것을 보고 삼양타이어의 경영진과 실무진은 말로만 들었던 컴퓨터의 능력을 실제 활용을 통해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가 삼양타이어로부터 두번째 테스트를 받은 것은 1974년 1월이다. 이번에는 원가관리를 의뢰해 왔는데, 회사경영상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타이어의 원·부자재들은 석유제품들(예 : 합성고무, 나일론코드 등)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원·부자재의 가격변동이 매우 잦은 여건하에서, 1000여종에 달하는 제품의 원가를 적시에 내수 판매거나 수출 판매가에 반영시키는 일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업무였다. 당시 회사의 여건으로는 2개월 이내에 원가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 임무가 이단형 연구원과 양영규 연구원에게 맡겨졌다. 삼양타이어에서는 유성용 대리와 김후진 씨가 참여하여 시스템 요구분석을 지원하였다.

## 3.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일

원가관리를 두달 내내 밤샘을 해가며 기간내에 관리에 필요한 수준으로 완성시키자 삼양타이어 경영진은 매우 흡족해 했으며, 회사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전산화 타당성 조사를 성기수

박사님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타당성 조사결과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전 산화를 시도하였다. 과제 집행책임자는 김봉일 연구원, 광주 과전팀 리더는 이단형 연구원, 참여연구원은 조석영, 성시용, 장영규, 서진희 등이었으며, 프로젝트 진행중에 유병연, 장영우 연구원 등이 충원되었다.

당시 삼양타이어 박상구 사장은 독특한 스타일의 경영을 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광주 송정리) 인력확보, 운송비 부담, 산업 Infrastructure, 정보수집여건 등이 다른 타이어 제조회사에 비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내수 수출 모두 성장력 면에서 타사보다 괄목할만하게 앞서고 있었다. 그 이유는 땀 흘림의 결과였다. 앞을 내다보는 비전, 근면, 성실, 일체감, ‘하면 된다’는 의욕으로 회사 전체가 뭉쳐 있었다. 특히 일체감은 사장이 먼저 출근해서 영어 공부하고(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이므로 외국기술자나 바이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생산직 사원과 같은 작업복 입고 아침 제조와 구보를 함께 하고, 생산직 사원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고, 공장내에서 작업자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호흡하고, 종업원의 복지 후생 생활안전성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었음에 기인한 것 같다.

인상적인 일 중의 하나는 1,5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식사를 하였는데 음식찌꺼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박상구 사장님의 지론은 ‘음식물은 쓰레기로 버려서는 안되며, 스스로 먹는 양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일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종업원들은 성실하게 이 수칙을 지켰다. 만성이 되기 전까지는 골치를 뒤흔드는 고무의 지독한 유황냄새, 창고를 일부 막아서 쓰는 사무실 환경, 회의실이 없어서 식사시간 사이 사이에 식당 한 귀퉁이에서 하는 회의, 하지만 모두가 술선해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의 현장에 우리 연구원들도 함께 참여했었다.

#### 4. 결 언

우리 연구원들도 삼양타이어 경영진의 방침을 인지하고, 삼양 가족 못지 않게 성실하게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 전산 불모지의 상태에서 외부 직원의 스카웃 없이 삼양타이어 자체인력으로 전산을 개발,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음은 커다란 보람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 프로젝트 수행중 동아제약 이래로 가장 앞선 MIS를 구현하였으며, 또한, 원거리 데이터통신에 대한 기술을 축적시켜, 추후 의료보험 전국 네트워크 등을 성공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었다.